

# 무 가격 90% 폭등 '비상' 정부 비축물량 600t 쏟아

### 배추값도 평년보다 20.4% ↑...수급 여건은 양호



무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기로 했다. 소비자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수급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봄철 무·배추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무 수급 여건을 보면 겨울무 저장량이 2만1000t으로 평년(5만1800t)보다 60%나 줄었다. 한파 피해에

때문 작황 부진 탓이다. 시설에서 재배하는 봄 무가 출하되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시장 공급량 부족으로 현재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무 도매 가격은 지난달 상순 개당 2386원까지 폭등했다가 중순께 1922원으로 낮아진 뒤 하순에 1988원으로 다시 올랐다. 평년에 비해서는 89.5%나 뚝 떨어졌다. 배추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지난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출하되는 겨울배추의 저장량이 생육기

인 1~2월 한파로 인한 감소(減耗·수량 부족)를 감안하더라도 평년의 8만4000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달 하순부터 출하되는 시설 봄배추의 재배 면적도 551ha(헥타르·1ha=1만㎡)로 평년보다 5.6% 줄어 드는 데 그쳐 수급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 상순 포기당 2723원까지 올랐다가 중순 2599원과 하순 2679원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평년보다는 20.4%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단기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무의 추가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축물량 600t을 단격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농협 유통매장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개당 1580원)에 무 판매 행사도 실시한다. 단 하루 물량 50t으로 제한한다. 또 향후 무와 배추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전국 단위 협의체를 통한 적정 재배면적 조절을 유도하기로 했다. 작황 호조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면 수매·비축을 통한 출하 불량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봄철 가뭄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물관리 등 농가 기술지도도 한다.

## “미세먼지 심한 4월, ‘이것’ 드시고 이겨 내세요”

### 농촌진흥청, ‘4월의 식재료·조리법’ 소개...녹두·머위순·오리고기

매월 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는 농촌진흥청이 4월에는 녹두, 머위순, 오리고기를 주재료로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했다.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녹두는 100가지 독을 치유하는 천연 해독제로 불리며 우리나라 잔치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산짐달(음력 3월 3일)에는 절기음식으로 녹두가무를 진달래꽃과 섞어 반죽해 국수를 만든 후 꿀물이나 오미자 물에 넣어 먹는 화면(花麵) 또는 수면(水麵)을 즐겼다. 녹두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으며 인, 철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비타민 E, 비타민 K가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다. 더위를 먹거나 변비가 심한 경우에 좋고, 당뇨와 고혈압에도 녹두 삶은 물이 효과가 있다. 녹두는 쌀과 섞어 밥을 하거나 갈아서 죽, 민대떡, 국수, 고물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녹두가 들어간 ▲녹두완박스테이크 ▲녹두말치볶음 ▲녹두랑수 등이 별미

로 꼽힌다. 머위순은 씹아먹으면서도 독특한 향을 지녀 '토종허브'로 불리며 봄에 입맛을 살리는데 제격인 계절채소다. 머위순의 쓴맛인 폴리페놀화합물과 특유의 방향성 정유성분은 소화촉진, 식욕증진, 거담작용을 돕고 노인이나 회복기 환자의 미른기침, 가래 제거에 효과적이다. 머위순은 이른 봄부터 4월까지 가장 향긋하고 맛이 좋다. 머위순을 고를 때는 잎이 시들지 않고 줄기가 단단하면서도 대가 곧게 뻗은 것이 좋다. 머위순은 데친 후 무치거나 볶아서 나물로 먹고 어린 꽃은 튀겨 먹는다. 잎은 씹이나 장아찌로 먹고, 뿌리는 차나 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머위순으로는 ▲머위순쭈꾸미전 ▲머위순녹두밥 ▲고기머위순들깨볶음 ▲머위순달걀구이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함유해 성장발달과 기력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 식

재료다. 오리고기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기름이 올라 맛이 좋고, 파, 미나리에도 잘 어울린다. 오리고기는 비타민 A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B2,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을 보면 고혈압, 신경통, 동맥경화 등 순환기 질환과 비만증, 허약체질, 병후회복, 위장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오리를 이용한 조리법으로는 ▲오리고기 볶음지탕 ▲오리고기장조림 ▲오리주물럭 등이 있다. 4월 식재료의 유래, 구입요령, 보관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접속한 뒤 '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 식생활영양과 김양숙 농업연구사는 "아외활동이 차츰 많아지는 4월에 녹두, 머위순, 오리고기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비트코인, 1분기 45% 이상 폭락...시총 129조원 증발

### 1월1일 1426만원서 3월 말 737만원에 거래



지난해 1300%가 넘는 가격 급등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올해 1월 1일 1만3412.44달러(약 1426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3월 말까지 각 거래 사이트에서 45% 이상 하락했다고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정보 업체 월드코인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비트코인은 8929.13달러(약 73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 대비 48.34%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1분기 비트코인 시가

총액은 1149억 달러(약 129조원)나 증발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2014년 1분기 38%가 최대 하락폭 기록이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초강세를 나타냈다. 2017년 초 960달러에서 출발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 동안 1335%나 상승했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 급등 논란에 각국에서 규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초부터는 가격 급락 사태가 잦아졌다.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은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G20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기술의 잠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 [사드 보복 1년]

## 홈쇼핑, 중국 시장서 여전히 고전

1년이 넘도록 국내 유통업체들이 사드 보복에 시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계 역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악화된 영업 환경 속 국내 홈쇼핑업체들은

현재 '차이나 엑스퍼트'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각 기업들은 중국 사업의 지분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 축소 및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선 롯데홈쇼핑은 2021년 이후

중국 사업 완전 철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중국 윈난과 산둥 지역의 사업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이다. 충칭 지역은 2021년까지 사업을 유지하도록 계약돼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2021년까지 충칭 지역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로 계약된 상태"라며 "그 이후에는 중국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4년 중국 상해(동방CI) 진출을 시작으로 천진(천천CI), 광둥(남방CI)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CI오쇼핑 역시 지난해 광둥 지역에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CI오쇼핑 관계자는 "최근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오늘 Lotto 제 800회차 당첨결과 (2018년 3월 31일 추첨)

1 4 10 12 28 45 + 26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1	1,632,246,20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1	58,675,51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79	1,373,31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0,95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01,924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일임)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